



'고창 담성놀이' 체험 하세요

'모양성제' 27일 개막 '제 33회 고창 모양성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사랑으로 걷는 전설의 고창읍성'이란 주제로 고창읍성(사적 제145호) 특설무대 및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모양성제전회(회장 조병재) 주최로 열리는 모양성제는 ▲제등행진 ▲불빛쇼 ▲고창읍성 1684 횃불 릴레이 ▲원님 부임행차 등 다양한 행사가 4일 동안 펼쳐진다.

또 관소리 명창공연과 국악 콘서트 '공감', 고창 거주 외국인 장기자랑 등이 열리며 2006 민속 예술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고창 오거리 당산제'가 재연된다.

축제기간 내내 행사장에서는 담성놀이(시진)와 고창읍성 군역체험, 전통 생활민속 공예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린다.

또한 고창 고인돌유적지에서는 '제3회 고인돌체험 마당'이 열린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칼라 토마토' 재배 성공

장성농기센터, 지역특화작목 육성

장성군이 전국 최초로 '칼라 토마토' 시험재배에 성공해 농가 새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한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 남면 농가에 노랑, 검정색 러시아종 칼라 토마토를 심어 시험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진>

칼라 토마토 검정색은 노화억제, 노란색은 면역체계 강화, 주황색은 각종 질병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기술센터 이조원(51) 채소화훼 계장은 "내년부터 칼라 토마토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시설채소 수출영농법인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입, 자동화하우스 시설 등을 설치해 농가 경쟁력을 확보, 국내 틈새시장과 수출에 역점을 두고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항생제 없는 새우 양식 기술 나왔다

전남대 이황희 교수-엘바이오텍 공동 개발

유산균 배양액 이용 면역력 강해 생산량 2배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산균 배양액'을 이용한 새로운 새우(대우) 양식 기술이 개발됐다.

전남대 이황희(생물학과·전남도 생물산업지원센터 소장) 교수는 장흥군 소재 (주)엘바이오텍(사장 이상종)과 공동으로 신안군 하의도·자은도 대우 양식장 2곳 6만여평에서 '유산균 배양액'을 투여한 대

하 양식 시험결과 항생제가 전혀 겸

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연 항생물질인 꿀벌의 프로폴리

스와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를 이용해 만든 유산균 미생물 배양액은 새우 자체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새우 아가미에 기생하는 섬모충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만평에서 새우 10t이 생산돼

항생제를 투여한 기존 양식 방법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2배 이상 많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립 수산물 품질검사원 완도

지원원에 항생제 잔류검사를 의뢰한 결

과 항생제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황희 교수는 "이번 유산균 배양액을 이용한 새우양식은 흰반점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사 예방은 물론 항생제 잔류 문제를 해결했다"며 "광어나 장어 양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하를 양식하는 최종출(신안군 자은면) 씨는 "9월 초 치어를 입식해 4개월간 배양액을 사용해 새우를 양식했으나 전혀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양식 새우 생산량은 신안 장산도·지도 등에서 858t를 생산, 126억5천3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무료 수자침 진료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19일 조합 회의실에서 조합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수자침 진료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려수자침 요법학회 전남지부 회원 10여 명이 헬압체크와 수자침 진료를 실시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쫄깃 쫄깃 꼬막 축제 열린다

벌교서 내달 3일 개최

'제5회 벌교 꼬막축제'가 오는 11월 3일~5일 벌교 제일고등학교와 대포리 갯벌 등에서 개최된다.

주무대인 벌교 제일고등학교에서는 ▲군민 노래자랑 예선전 ▲실버 댄스·가요제 ▲청소년페스티벌 ▲웃찾사 개그공연 및 웬 사이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또 꼬막까기 대회와 꼬막요리 경연이 이어지며 '소설 태백산맥' 작가

인 조정래씨와 동행하는 '태백산맥 가족탐방'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여자만 대포리 갯벌에서는 어촌계대학 '꼬막 날배타기 경연대회'가 열려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벌교 여자만 갯벌은 지난 1월 국내 해안습지로 처음으로 국

제습지보전 협약인 '립사 협약' 보전 습지로 등록되며, 736ha(39구구 어촌계)에서 연간 6천 500t의 꼬막이 생산돼 20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성=인구일기자 gjahn@

구한말 의병·항일 활동무대

해남 성도사 요사채 등 복원

구한말 의병들의 활동무대이자 일제강점기 전남 항일 농민운동의 역사적 무대였던 해남 성도사가 반세기만에 복원된다.

해남군은 북령면 동해리 두륜산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도사의 60평 크기 대웅전이 최근 복원됐으며, 내년 완공 예정으로 요사채, 선방 등 부속건물이 견립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도사는 1909년 의병장 항일두장군 등 의병 100명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다 전원 순국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또 1933년 전남지역 농민 대표들이 이 절에 모여 항일 농민운동의 핵심단체인 '전남협의회'를 결성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해남=박정숙기자 jopark@

나주 洞지역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농어촌 특별전형

중학생 타지역 유출 줄듯

나주시 동(洞) 지역 소재 고등학교들이 2007년 대학입시부터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이처럼 지역 교육 여건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대학 진학을 위해 나주지역 중학생들이 타지역 고등학교로 대거 유출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나주교육진흥재단에 따르면 그 동안 나주시 동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오는 2007학년 대학입시부터 특별전형 제도 적용을 받게 됐다.

심운기 나주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은 "농어촌특별전형 기회를 얻기 위해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내신 성적 10% 이내의 상위권 학생들이 나주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최고 500만 원에서 최하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장학제도를 2007

학년도에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영광 법성~홍농 도로

4차선 확·포장

영광 법성~홍농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된다.

영광군은 19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재봉 예산 지방국토관리청장, 이낙연 국회의원(민주당)이 영광군을 방문, 법성~홍농간 도로 사업에 대한 현장브리핑에서 예산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영광군 법성면 화천리에서 홍농읍 성산리까지 8.9km에 달하는 법성~홍농간 확·포장 사업에는 6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서남권 相生의 전기로 삼자

지난 10일 정종득 목포시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 무안군과 목포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무안군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중국도 개발 안된 곳이 많은데 무안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정시

장의 발언이 무안 기업 도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안 주민들이 정시장 발언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예전된 일이다. 기업도시 추진에 지역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무안 입장에서는 인근 목포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달가울리 없다.

정시장의 기업도시 발언은 '중복투자 최소화'를 위해 인접 시군 단체장을 이협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모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비롯됐다. 정시장은 "서남권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 안목으로 인근 시·군과 협력과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에 서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소속 차지단체만을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협력 발전해 나가는 것만이 상생의 길임을 명심하자. 눈앞의 성과 보다는 높고 깊은 안목으로 서남권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매진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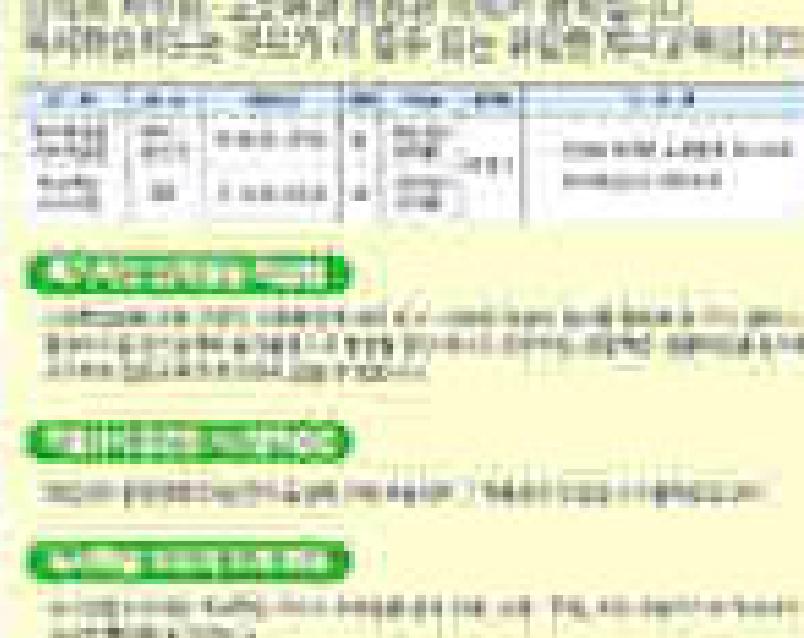
임영춘

<사회2부 부장·목포>

제1기 광주CBS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요강

문화교사 양성대학

독서학습 전문교사에 도전하세요



전문방송학과의 글 디스플레이센터에서 살펴보세요



풍성한 가을 다양한 문화행사로 보내겠습니다

